

동포 여러분, 우리 서로 칭찬합시다!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3년 11월 24일(금)
(윤력 10월 12일)
Пятница
24 ноября 2023 г.
№ 45 (12062)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11월의 마지막 일요일 러시아에서 어머니의 날을 기념한다. 올해는 이 명절은 11월 26일에 쉰다.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의 노인정 모임을 찾아온 할머니들. (이예식 기자 사진첩에서)

친애하는 어머니 여러분!

올해 11월의 마지막 일요일인 26일을 우리는 가장 따사롭고 감동을 주는 명절인 어머니의 날로 기념합니다.

이에 사할린과 쿠릴열도의 어머니들에게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어머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첫걸음을 내딛을 때, 또는 역경 속에 절망할 때 어머니는 우리에게 생기 불어넣어주시며, 든든히 지지해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믿어주십니다. 우리가 몇 살이 되든지 어머니 곁에서 우리는 어린아이임을 느낍니다. 이러한 느낌은 정말 가치로 따질 수 없습니다. 어머니가 되는 것은 기쁨이면서 동시에 어려움도 있습니다.

사할린주에서 자녀를 가진 가정에 대한 돌봄은 지역 정부의 관심의 중심에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모든 어머니들이 내일에 대한 확신을 가지며, 어린 자녀들이 건강하고, 강인하며, 자신의 재능을 펼치고,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얻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할린주에서는 폭넓은 항목의 사회지원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에는 현대적인 장비를 갖추고, 학교와 유치원을 수리하거나, 건설하고 있으며, 보충교육기관을 발전시키고 있고, 또한 스포츠 시설도 건설하고 있습니다.

모든 어머니의 사랑과 용서와 인내와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손주들이 더욱 자주 여러분에게 기쁨을 안겨주길 바라며, 행복과 건강과 형통함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친애하는 어머니 여러분, 어머니의 날을 축하드립니다!
사할린 주지사 알레리 리마렌코

사할린 주민들 지역 예산기획 지지

2024년 1월 1일부터 근로임금 추가 지급을 의사, 교사, 유치원교사, 문화기관 종사자, 사회복지사들이 받게 된다. 공무원의 임금은 10% 상향 조정된다고 2024년-2026년 사할린주 예산 기획안에 따른 공청회에서 알려졌다. 공청회에 사회운동가, 의회의원, 연방 및 지방과 지역 정부 집행기관의 대표들이 참석했다. 사할린 주정부 알렉세이 벨릭 총재가 언급한 바에 따르면 주요 재정안에는 사할린과 쿠릴 주민들을 위한 모든 사회적 의무를 집행하기 위한 필요한 자금이 규정되었다고 했다. 주요 재정안의 기본항목을 사할린주 재무부의 올라 로파티나 장관이 발표한 가운데 2024년에 지역 국고 소득은 1,784억 루블리로 예상하고 있고, 2025년에는 1,722억 루블리, 2026년에는 1,599억 루블리로 예상하고 있다.

지출 부분은 2024년에 2,174억 루블리, 기획기간인 2025년에는 1,970억 루블리, 2026년에는 1,833억 루블리로 예상하고 있다.

주예산은 사회적 방면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다. 2024년에 보건 분야의 발전을 위해 310억루블리가 배정되었고, 교육 분야에 지출은 326억 루블리가 배정, 문화와 스포츠 분야에는 각각29

억8천만 루블리, 33억 루블리가 배정됐다. 사회지원책 시행에 따른 비용은 230억 루블리로 배정됐고, 사할린과 쿠릴 주민 24만5천 명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게 된다. 주예산은 사회적 방면을 중심으로 하면서 투자 방면도 유지한다. 가장 먼저 주요 투자가 이뤄진 사업은 이미 착수한 사회문화적 분야의 시설들 완료, 주택공사사업 시설 공사 및 주택 건설과 도로 제반시설 구축 완료이다. 향후 3년간 전반적인 개발프로그램에 628억 루블리가 배정됐고, 주어진 자금으로 경제 및 사회적 다양한 분야 133개 시설의 개건과 건설을 시행하게 된다.

공청회 참석자들은 의료지원 이용의 편의성과 보건시설 건설, 노후주택으로부터 이주, 쿠릴열도 개발을 위한 자금 배당, 유즈노사할린스크의 주변 대기의 질적 개선, 유즈노사할린스크 교통 연결망의 개건과 건설 등에 대한 주제로 문제를 제기했다. 모두 발언한 제안들은 공청회 기록부에 기입되고, 사할린 주두마와 국가 정부기관과 지역 자치기관에 검토를 위해 발송된다. 2024년2026년 주예산 편성에 대한 기획안 첫 발표는 12월 7일에 검토하여2024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단신

2024년 영주귀국 설명회 개최

오는 11월 30일(목) 낮 12시 30분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사할린한인문화센터 강당에서 2024년도 영주귀국지원사업 설명회가 개최된다. 설명회는 재외동포청, 대한적십자사, 주유즈노사할린스크영사출장소의 주최 아래 진행되고 회의에는 재외동포청, 대한적십자사 등 대표들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주유즈노사할린스크출장소 측이 전했다.

연초부터 사할린 및 연해주의 생선과 수산물 수출, 70% 증가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사할린 주와 연해주에서 수산물 총160만 톤, 생선류 2만 톤 이상이 수출되었다.

연해주 지역 간 러시아 농업감독청에 따르면 지난해와 같은 시기에 비해 수산물 수출은 70% 증가했다고 전했다. 특히 올초부터 중국으로 생선 및 수산물 110만 톤, 한국으로 50만1천 톤, 일본으로 2만 톤, 태국으로 1만 톤, 나이지리아로 7천 톤이 수출되었다.

현재 사할린과 연해주의 생선제품은 전세계 20개국에 공급되고 있으며, 명태와 대구, 활게는 훨씬 더 수요가 많았다.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에트노 오스트로브> 전시회 열려

사할린과 쿠릴열도에서 소수민족 원주민 문화와 전통의 보전과 대중화에 관한 사업으로 유즈노사할린스크 '화가들의 도시' 갤러리에서 <에트노오스트로브(민속 섬)> 독특한 전시회 및 판매가 열렸다.

<에트노오스트로브>전시회는 사할린 주 소수민족 원주민의 대표들을 포함해 재능있는 화가들과 장인들 20명 이상의 참가로 조성됐다. 전시-판매의 일환으로 회화 그림과 선화만 아니라 의류, 도자기, 장신구 등 독특한 물품들도 전시되었다.

<에트노오스트로브> 전시-판매전은 12월 4일까지 열린다.

사할린의 승마선수, 국제 승마 경기에서 금메달 획득

사할린의 승마선수 안드레이 리센코가 '미스터 폭스'란 이름의 말을 타고 '아랍에미리트 연합 대통령 소령컵' 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전통 승마 경기가 모스크바주에서 열린 가운데 안드레이는 말과 함께 130cm 높이 장애물 넘기 코스에서 훌륭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경기에는 유즈베키스탄, 벨라루스, 러시아에서 말과 함께 300명 이상의 승마선수들이 참가했다.

이 대회는 1994년부터 개최되어 2022년에 러시아에서 처음 열리게 되었으며 이번 경기는 주모스크바 아랍에미리트 연합 대사관과 주러아랍에미리트 대사의 개인적 후원으로 개최됐다.

새고려신문

2024년 상반기 신문 구독 계속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4년 상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이 계속됨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은 새고려신문 창간 75주년인 만큼 우리에게 각 독자가 소중합니다.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6개월 구독료는 646,98루블리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ИП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편집부)



사할린 한인 문제: 언제 해결될 까?

일본은 꼭 책임을 져야 한다

사할린 할머니의 이야기

얼마 전에 우글레고르스크시를 다녀왔다. <사할린한인 역사적 정의 회복을 위한 토론 마당>기획의 일환으로 우글레고르스크시 향토박물관에서도 '제2차 세계대전 시 일본인들이 조선인들에게 저지른 범죄'이란 강연을 개최하기로 했다. 이는 사할린주한인협회 역사기념사업을 담당하는 박 웨니아민 고문 제안으로 앞으로 사할린의 여러 구역에서도 사할린한인 문제로 강연을 하기로 했다.

우글레고르스크 향토박물관



일요일 이른 아침 박 웨니아민 고문의 차를 탄 진 울리아 역사학 박사 와 필자는 우글레고르스크로 향했다. 4시간반 만에 우글레고르스크 향토 박물관에 도착해 강연 준비를 하였다. 우글레고르스크 향토박물관의 한 구석에 한민족을 소개하는 코너가 있

었다. 민족 옷차림, 악기 등도 있었고 사할린한인에 관한 책자, 그리고 새 고려신문이 많이 놓여 있었다. 볼거리는 꽤 있었다.

이번 모임에는 약 4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사할린한인 동포가 많았고 강연 내용에 관심을 가진 러시아인도 있었다. 우글레고르스크에는 사할린 한인 단체가 두 개가 있는데 갈등이 좀 있지만 이번 행사 만큼은 두 단체 회원들과 회장(강수복 회장, 유경숙 회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 보기가

좋았다. 재미있게 진 울리아 박사의 강연을 청취한 이들은 1945년 8월에 사할린에 여러 지역에 있었던 조선인 살해 사건들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있었지만 자세한 내용은 듣지 못했다고 하였다. 이런 이야기는 사할린한인역사와 관련해 계몽사업이 필요하

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체사진을 찍은 후 사할린주한인협회 소속 우글레고르스크 시한인회 유경숙 회장의 인솔하에 김인순 어르신 집을 찾아가다.

김인순 할머니



사실 김인순 할머니를 찾는 것이 우글레고르스크로 가는 중요한 목적이기도했다. 이분 남편이 아직도 일본 통장을 갖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빨리 만나기로 했다.

우리 팀을 반가이 마중하는 김인순 할머니는 1934년생이다. 그의 남편 이문택 씨는 열살 위, 1924년생이다. 두 분은 화태에 와서 같이 일을 했

다고 한다. 그는 1951년에 결혼하고 딸 셋에 아들 하나 두었다.

"우리 영감님이 돈도 못 받고 돌아가셨어요."라고 한 할머니는 긴 숨을 쉬었다. 그의 남편은 1993년에 돌아가셨는데 가시기 전에 '이 통장을 잘 가지고 있어. 내가 고생하고 피땀 흘린 돈을 꼭 받아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좀 떨어진 '니이타'탄광에서 일하였다고 하는 할머니는 정확히 탄광 명칭은 잘 몰랐다고 한다. 강제동원된 남편은 사할린한인 귀환에 노력한 분으로 잘 알려진 박노학, 이희팔 씨와 친구분이었다고 김 할머니가 이야기했다.

돌아가시기 전에 남편은 두 번 모국방문을 할 수 있었다. 1980년대 말에는 일본을 거쳐 아내와 자녀 둘을 데리고 고향에 방문했고 그리고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1990년대 초기에 방문했다. 김 할머니는 정확한 년도를 기억하지 못한다. 내년에는 만 90세가 되는 할머니는 어렸을 때 정말 고달픈 삶을 살아왔다고 했다.

그의 어머니는 큰 아들의 병때문에 1945년에 급히 조선으로 돌아갔는데 가보니 아들도 죽고, 전쟁으로 사할린에도 돌아오지도 못한 채,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이듬해 중풍으로 가셨다.

두 딸을 키워야 하는 아버지는 김인순 씨와 그의 언니를 위해 여기 저기 다니면서 많은 일을 해왔다. 고생을 참 많이 했다고 한다. 김 할머니는 "아버지가 김치를 담그지 못했다. 그래서 시집갈 때 김치 담글 줄 몰랐다."고 했다. 그리고 성인이 되어 재봉을 배워 평생 바느질을 해왔다고 했다.

김 할머니의 이름은 킨 단체의 최상구 씨가 쓴 '사할린. 얼어붙은 섬에 뿌리내린 한인의 역사와 삶의 기록' 책에도 등장한다.

그는 남편 통장 외에 친척의 통장도 갖고 있다. 그런데 이걸 언제 어떻게 받아야 할 지 잘 모르겠단다. 일본 타카기 켄이찌 변호사가 사할린을 방문했을 때 할머니는 통장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분도 이에 대해 확답을 주지 못했다. 그래도 할머니는 이 돈을 기다리고 있다. 그는 "작은 돈이라도 만약 받으면 빵 한 동아리라도 나눠 먹자."고 아이들에게 말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영주귀국하고 싶지 않은 것은 "나도 11살에 어머니 잃고 어머니가 우리를 못 보고 돌아가셨잖아요.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며 자녀들과 헤어지기 싫은 이유를 말했다. 그는 한국방문 얘기도 하고 아버지와 살았던 어릴 적 얘기도 하였다. 할머니는 일본 학교에서 4학년까지 공부했다. 한글은 스스로 배우게 되었다고 한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시간이 빨리 지났다. 작별 인사를 하려고 하니 소파 뒷쪽에 모아온 우리 새고려신문을 발견했다. 할머니는 신문은 꼬박꼬박 읽고 있다고 하셨다.

'이런 장수한 애독자 덕분에 우리 신문이 살아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더 많은 이야기 하고싶었지만 4-5시간 유즈노사할린스크로 가야 해서 "할머니, 건강하세요"라는 작별인사를 하고 떠났다.

(배순신 기자)

이 모 저 모

대중교통체계의 현대화

사할린에 대중교통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계속되고 있다.

발레리 리마렌코 사할린 주지사는 지난주 지역 운송회사의 운전사들에게 25대의 현대식 버스의 열쇠를 전달했다. 새로운 러시아 자동차 '네파즈'는 천연가스 엔진 연료로 작동되고, 앞으로 유즈노사할린스크의 노선버스들을 위한 기술 장비도 공급할 예정이다.

새로운 종류의 버스를 확보하는것은 대중교통체계 현대화의 연속 프로그램이다. 유즈노사할린스크를 위한 총 168대의 새로운 천연가스 구동 버스가 구입됐다. 정부의 요청으로 이는 대규모 교통개혁의 일부로서 그 일환으로 대중교통의 친환경 체계가 개선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운행노선이 도입되어 현대적인 버스 정비시설도 건설되고, 철도교통과 기타 교통수단이 통합체계로 연결된다. 교통개혁은 주 중심에만 적용될 뿐만 아니라 올해 연말까지 유즈노사할린스크를 비롯해 코르사코브, 네벨스크, 흄스크, 아니와시에서도 275대의 버스를 개설했다. 현재 사할린에 215대의 버스가 공급된 가운데 그중 193대가 천연가스 엔진 연료로 운행되고 있다. 내년에는 계획상 69대의 현대적인 버스를 구입할 예정이다.

Модернизация системы общественного транспорта

На Сахалине продолжается работа по улучшению качества общественного транспорта. На прошедшей рабочей неделе губернатор област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ередал ключи от 25 современных автобусов водителям муниципальной транспортной компании. Новые машины российской марки «Нефаз» работают на газомоторном топливе.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техника выйдет на маршруты островной столицы.

Новая партия стала продолжением программы модернизации системы общественного транспорта. Всего для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было приобретено 168 новых экологических машин, работающих на газе. И по заявлению властей, это лишь часть большой транспорт-

ной реформы, в рамках которой не только улучшается экология системы общественного транспорта, но и вводятся новые маршруты, строится современный автобусный парк, в единую систему интегрируется железнодорожный транспорт и многое другое.

Реформа коснется не только столицы региона, всего до конца этого год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Корсакове, Невельске, Холмске и Аниве обновят 275 автобусов.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на Сахалин поставлено 215 машин, 193 из которых работают на газомоторном топливе. В планах на следующий год — приобрести еще 69 современных автобусов.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사업은 바로 나>포럼이 열려

<사업은 바로 나> 제3회 청년 교육포럼이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열렸다.

이에 '마약(등대)' 아트센터에 60여 명의 청년들이 모인 가운데 자영업 또는 개인사업의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도 있고, 자영업 창업에 대해 계획하는 청년들도 있었다.

이에 전문가와 교육자, 지역 공직자들이 자영업을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를 포럼 참가자들에게 설명했다. 지역 차원에서 장려금부터 보조금에 이르기까지 40개 이상의 지원책이 있어 이것으로 여러 분야의 창업을 시도해볼 수 있었다. 참가자들은 집중적으로 자신의 사업을 어떻게 조직해야 하고, 어떻게 올바르게 사업과정을 구축하며, 사업계획 작성 및 기타 꼭 필요한 지식을 얻었다.

한편 정부 대표들은 청년들로부터 사할린 지역 정부 및 연방 차원의 부족한 점에 대한 피드백을 받았다.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рошел форум «Бизнес – это 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рошел третий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й форум для молодежи «Бизнес — это Я!». В Арт-резиденции «Маяк» собрались около 60 молодых людей, некоторые из которых уже обладают статусом самозанятого или индивидуальный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 а другие только думают об открытии собственного дела. Эксперты, тренера и областные чиновники рассказывали

форумчанам как начать свой бизнес. На региональном уровне существует более 40 мер поддержки от грантов до субсидий ими может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любой начинающий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 На интенсиве участники получили необходимые знания о том, как организовать собственное дело, о формах поддержки для начинающих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о том, как правильно выстроить бизнес-процессы, составить бизнес-план и многое другое.

В свою очередь представители власти получили от молодежи обратную связь о том, чего им не хватает со стороны государства на региональном и федеральном уровне.

사할린 어린이, 전국 우수 바둑선수 상위 10위에 진입

사할린의 어린이 드미트리 쿠프리야노브가 러시아 우수 바둑선수 상위 10위 안에 들었다고 주스포츠투부가 전했다.

마가단 지역에서 마가단 바둑축제와 전국 바둑 선수권대회가 열린 가운데 러시아 전 지역에서 200여 명의 선수들이 경기에 참가했다. 사할린 지역을 대표해 드미트리 쿠프리야노브는 선수권대회에 출전하고, 니키타 키슬리는 바둑축제에 참가했다.

쿠프리야노브는 '9세 이하' 부문에서 7위를 차지했고, 니키타 키슬리는 여러 연령별 6개 경기에서 4번 우승하여 44위를 했다. 주 스포츠부는 주요 바둑 스포츠 행사에 지속적으로 참가하는 바둑 선수들로 구성된 전 러시아 바둑선수들의 등급을 기반으로 순위가 집계됐다고 언급했다.

Юный житель Сахалина вошел в ТОП-10 лучших спортсменов по го

Сахалинец Дмитрий Куприянов попал в десятку лучших спортсменов России по го.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регионального министерства спорта. В Магадане прошло первенство страны и магаданский фестиваль по игре го. Соревнования собрали около 200 спортсменов со всей России.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на соревнованиях представили Дмитрий Куприянов (первенство) и Никита Кислый (фестиваль). Куприянов в категории «до 9 лет» занял седьмое место.

(8면에 계속)

'사할린 만남: 삶, 창작, 마음에 대해' 기획

가족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는 리 알렉산드르 감독

지난 20일(월) 유즈노사할린스크 시 가가린호텔 대회의실에서 새고려신문사가 추진하는 '사할린 만남: 삶, 창작, 마음에 대해' 기획의 일환으로 사할린에서 배우로서, 감독으로서 이름이 알려진 동포 리 알렉산드르와의 만남이 개최되었다.

1982년생인 그는 b 코르사코브출신으로 청소년시절부터 라디오방송국에서 일하겠다는 꿈을 키웠다. 한번 그의 어머니가 방송국에서 일하려면 사할린 연극전문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어떠냐고 조언을 해서 그는 바로 이 학교와 접촉을 했다. 연극전문학교에서 이 전공을 졸업하면 라디오방송국에서 일할 자격이 충분할 거라는 답을 받은 알렉산드르는 망설이지 않고 바로 이 학교에 입학했다. 배우 연기를 익히며, 배우수록 배우라는 직업이 좋아졌다. 연극전문학교를 졸업할 무렵에 연기를 가르쳤던 그 당시 사할린 체호브센터(드라마극장)의 총감독이 실력있는 연기자로 학생 5명을 극장 배우로 초대했는데 그중 알렉산드르도 포함됐다. 동양인의 얼굴이었지만 실력자로서 그는 이 극장에서 수많은 작품들에서 다양한 역할을 맡았다. 주인공도 하고, 조연 배우도 많이 했다. 이 극장에서 그는 무대 주연의 우수한 연기자로 인정받으며 2005년부터 2019년까지 배우로 일해왔다. 2012년에 그는 두 친구들과 함께 '사할린 스키 에크란(사할린의 화면)' 아마추어 영화제에서 대상을 받고, 대회 심사위원장이며 러시아에서 잘 알려진 영화감독 알라 수리코와의 추천으로 다음해 모스크바로 떠나 2년간 '각본 및 감독 고등과정'에서 교육을 받게 되어 영화감독 자격증을 따냈다. 2016년에 졸업작



품으로 20분짜리 '심장의 박동' 단편영화를 찍었는데 관객들의 반응은 아주 좋았다.

사실 사할린에서 영화를 찍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거의 제작비가 없어 함께 영화를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열정만으로 촬영을 무사히 끝냈다. 준비는 장기간 해왔지만 영화는 8일만에 찍었다. 알렉산드르가 영화감독으로서 자격이 충분하다는 것을 잘 보여준 예이다. 영화와 관련된 것으로는 '크라이 스웨타(세계의 끝)' 영화제의 일환으로 여러 기획 활동에도 참여했다.

알렉산드르는 가족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가족들의 의견에 귀를 많이 기울이기도 한다. 그가 모스크바에서 교육을 받을까 말까 망설였을 때 가장 먼저 그가 의논한 사람은 어머니였다. 그리고 배우의 길을 선택할 때도 부모는 그를 응원했다며 부모의 지지로 든든했다고 그는 말한다.

배우로서 다양한 역할도 해보았고, 다른 길도 찾아야하겠다는 생각에 극장 일을 그만두고는 이어 곧 결혼을 하였다. 현재 그의 가족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



이다. 사실 이 만남에서도 아내와 31개월의 아들이 함께 와서 응원 해주었다.

리 알렉산드르가 공식적으로 극장으로부터 자유로워졌을 때 그는 연극 감독을 시도했다. 2021년에 무대에 '개' 작품을 올려보았는데 반응이 뜨거웠다. 다만 초연만 있었고, 작품의 주인공이 결혼해 다른 나라로 이민간기 때문에 이 작품은 그대로 묻히고 말았다.

2022년에 그는 사할린주 민속창작센터에 취직해 민속창작부의 연극 장르에서 선도전문가로서 활동하고 있다. 그동안 그는 이미 3개의 연극을 연출했다. '넙흐구' 연극은 사할린 원주민 소수민족 넙흐인들의 동화로 만든 작품이고, '나는 여기 있다' 연극은 아마추어 배우로서 장애아들이 출연하는 작품이고, '인도하는 하늘'은 세계동화로 꾸며진 연극이다. 이 작품들의 공통점은 몰입형 연극으로 연출된 것이다. 특히 '나는 여기 있다' 작품은 관객들이 눈을 가려 후각, 촉각, 청각을 통해 연극을 '보고' 있다.

그는 감독으로서 다양한 기술을 쓰고 있고, 아마추어 연기자들과 함께 걸어오고 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이날 만남의 참가자들은 리 감독의 창작과 생각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 그는 이날 마음

에 있는 생각을 많이 토로했다. 화면에는 리 알렉산드르를 소개하는 자료와 배우로, 감독으로서의 출연 작품 장면도 띄웠다.

알렉산드르는 작품을 통해 인간의 가치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싶다고 했다. 그리고 한인으로서 한민족 테마를 보여주고 싶다고 했다. '인도하는 하늘'에서는 이런 생각이 어느 정도 엿보인다. 4개 동화 중 하나는 한민족 동화로서 작품에서 여러 가지 '아리랑' 민요를 들려주고 있다.

참가자들은 이날 만남의 주인공에게 다양한 질문을 했는데 그중 동포극장을 만들고 싶지 않은 가라는 질문도 있었다. 또한 관객들은 알렉산드르의 작품을 보고 싶다고들 했다.

사실 그의 연극 무대를 찾는 관객은 항상 만원이다.

보통 이 기획의 만남 주인공은 마음에 드는 질문에는 준비한 기념품 등을 선사하는데, 이번에는 알렉산드르가 질문을 하는 모든 분들을 연극 관람에 초대한다고 하였다.

'사할린 만남: 삶, 창작, 마음에 대해' 기획은 2021년 가을부터 가가린호텔의 지속적인 협력으로 진행되고 있다.

(취재: 글/배순신, 사진/이예식)

허진원의

<사랑하기 좋은 날>

나는 세상 모르고 살았노라 / 김소월

'가고 오지 못한다'는 말을 철없던 내 귀로 들었노라. 만수산(萬壽山)을 나서서 옛날에 갈라선 그 내 님도 오늘날 뵈울 수 있었으면.

나는 세상 모르고 살았노라, 고락(苦樂)에 겨운 입술로는 같은 말도 조금 더 영리하게 말하게도 지금은 되었건만. 오히려 세상 모르고 살았으면!

'돌아서면 무심타'는 말이 그 무슨 뜻인 줄을 알았스라 제석산(啼昔山) 붙는 불은 옛날에 갈라선 그 내 님의 무덤에 풀이라도 태웠으면!

“**〈할주요〉**의 노래로도 유명세를 앓았던 시집지요. 배철수의 깡다구 서린 외침이 멋드러진 노래입니다. 어쩐지 한 시대를 걸러 타임 머신을 타고 저 역시 그 시절 청자켓을 걸친 기분입니다. 사실 제 시대는 배철수의 시대라기보다는 서태지의 시대가 가까운데, 아무렴 어떻습니까? 그때 제 친구 녀석 중에는 결코 가요는 듣지 않고, 영국의 핑크 플로이드와 레드 제플린 LP만 주구장창 수집하며 90년대 문화를 뒤로하고 70년대 문화 속에 살던 친구도 있었는데요. 음, 나도 그랬나? 참, 그 친구는 요즘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물론 종종 만나는 편인데요. 독일의 희귀 음반 발렌슈타인(Wallenstein)을 찾아 헤매듯, 이제는 발렌타인 양주 말고, 맥칼렌, 발베니(Balbenie) 등을 모으고 있지요. 워낙 맛이 좋은 술들이니 그 때 그 때 제가 좀 함께 음미하고 있기도 하고요, 아무튼, 아, 얘기가 왜 또 이리로 온 걸까요? 다시!



시간은 꼭 파도를 닮습니다. 거침없이 밀어부치니 우리 인간에게는 불가항력의 힘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 형체가 잠시나마 삼겹살 비계처럼 형태를 갖추다가도 어느새 흔적도 없이 사라지곤 하니, 이 보다 더 괴이한 '추상'이 어디 있을까요? 그렇다고 시간을 박제 시킬 수는 없는 노릇. 이렇게 누군가의 시가 다시 노랫말로, 그리고 잠시 잊혀지는 듯 하다가 그 불씨가 살아남으며 누군가의 머릿속을 괴롭힐 수 있다면 그 시는 정말이지 살아남은 게 맞겠지요.

저 역시 이제는 같은 말도 조금 더 영리하게 말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편인데요. 역시 이 세상에 관해서라면 물음표 투성이 뿐입니다. 뭐하나 제대로 아는 게 없네요. 참 책도 오랫동안 들여다 본 일생일지인데, 이제껏 몰랐으니 앞으로도 알 길이 없을 것만 같아 새삼 두려운 밤입니다. 이럴 때는 음악이 최고지요. 자, 그럼, 〈나는 세상 모르고 살았노라〉를 들었으니 다음 곡 올립니다. 아직 LP 상태가 훌륭하네요. 〈Rovescio Della Medaglia〉의 명반 〈Contaminazione〉에 수록된 노래 〈La Mia Musica〉. 아니 〈뉴진스〉의 〈Ditto〉를 들어야 하나, 흠.

서울에서 허진원 작가

사할린에서 열리는 <기술의 경제적 절감> 극동 포럼에 250명 이상 참가

11월20일 <기술의 경제적 절감>연례 극동 포럼이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열렸다. 이에 러시아 전 지역에서 운영자, 교육기관의 종사자 및 대학생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 250명이 이상이 참가했다. 3일에 걸쳐 진행되는 포럼에서 이들은 경험을 공유하며,강연을 통한 교육과 활동교실을 진행했다. 이 포럼은 <효율적인 지역 관리>, <린 교육(교육의 경제적 절감)>, <혁신가들의 청년운동>3가지 분야에서 펼쳐졌다. 포럼 개막에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인사말을 전하며 "우리나라는 전례없는 외부적 압박의 여건에 살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더욱 경쟁력이 있고, 효율적이 되어야 하고, 기술 절감은 경제 및 사회 분야 등 모든 분야에서 도입해야 한다. 이것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우리에게 제시한 과제다. 이에 따른 활동으로 무엇보다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포럼이 여러분 모두에게 생산적인 활동이 되길 바라며, 3일간 포럼이 유익할 거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사할린주에서는 몇 년간 지역 운영의 종합적 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이는

린 생산(생산의 경제적 절감), 기획 관리 및 정보에 의한 관리와 운영 등 3가지 요소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 요소들의 효율성과 안정성으로 작업하는 가운데 가장 다양한 과정들에 이 요소들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이러한 접근은 유즈노사할린스크에 먼저 퇴직자에도 적용되었다. 이를 위해 전문가들은 도시 공공시설 공사 진행노선 지도를 가지고, 작업활동의 일정표를 분석하여 청소구역의 질적 저하가 원인을 밝혔다. 먼저 최적의 일정표를 작성한 후 통합된 규정을 작성해 확인하고, 규정을 지침으로써 디지털화 감독을 조성했다. 결과로 도시에 먼저의 양은 5배나 줄었다.

또 한 예로 가정에 가스화 작업으로 가스를 신속히 공급하기 위해 사할린에서 <하나의 창구>정책으로 필요한 서류 등록을 하도록 했다. 현재 가정에 가스공급을 하기 전 신청서 제출이 두 달간 진행되고 있고, 기한은 한 달 남았다.

린 기술(기술의 경제적 절감)을 성공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사할린의 기관들은 모범적 지위를 얻고 있다. 현재 사할린 지역에서는 이러한 기관은 33개나 된다. 우수한 실례와 지식을 충전하고, 전달하기 위해 사할린국립대에서 지역 경영 아카데미를 개설했다. 경영 아카데미에서는 대학생들을 비롯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 정부 및 지방 조직의 종사자들을 훈련시키고 있다. 수강생들은 모범기관을 방문하고, 공정 작업을 알아보고 전문가들과 교류하게 된다.

· '린 건설', '린 생산'의 '린(Lean)'이란? 린(Lean)이란? '기름이 없는, 군살이 없는'이란 뜻으로 '린' 생산방식이란 최소한의 자원을 사용하여 낭비를 최소화 한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이는 일본 자동차회사 '도요타'의 생산 시스템에 기초한 것으로 인력과 설비 등 생산능력을 필요한 만큼 유지하면서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작업정보를 긴밀하게 교환하는 협동적 생산시스템이다.

한마디로 '낭비를 최소화하는 가장 경제적인 건설생산 시스템'이다.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Из фондов СОХМ

Современная гравюра Кореи

Я р к и м представителем искусства современной корейской гравюры является известный мастер И Чоль Су. После первой персональной выставки, состоявшейся в Сеульской галерее Кванхун в 1981 году, его имя стало знаковым,



И Чоль Су (1954 г.р.). Провинция Чхунчхон-до
О, цветы в холодный день! 1985
Бумага ханчжи, цветная ксилография. 36x92
Поступление: с персональной выставки «В поисках гармонии» (СОХМ), 2017
КП- 10283 Г/в- 4252

вхождение в мир современного искусства принесло ему заслуженный успех. Каким смелым, открытым, решительным художником предстал Чоль Су, можно судить по его ранним работам периода 1980-х годов. Являясь активным участником движения «За народное искусство», его творчество десятилетия 80-х стало, по сути, отражением социальных проблем. Он выступал от лица простого народа, всегда мечтавшего о социальном равенстве в стране, о мирном труде на родной земле, дарующей жизнь. Графический лист 1985 г. «О, цветы в холодный день!» представляет своеобразный символ настроений корейского народа, традиционно жившего мирным трудом, единственным «флагом» которого, олицетворяющим борьбу, был труд и плоды рождения и цветения земли. В этом состояла сила души корейского народа. Контурными линиями, широкими и грубоватыми, в условном пространстве сельского поля изображены согбенные фигуры мужчины и женщины в национальных одеждах, идущие по черной земле друг за другом, держа в руках развевающийся «стяг» из крупных розовых цветов чиндолле, приносивший спасение крестьянам в голодные тягостные годы.

Хай Ок Дя, гл. научный сотрудник СОХМ

Государство заинтересовано в социальной активности мигрантов

Сеул, 20 ноября – ИА РУСКОР. Южная Корея движется к расширению политическ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и социокультурного участия более 2 миллионов иностранных резидентов в стране, поскольку президентский комитет по национальной сплоченности недавно создал специальную комиссию для разработки более эффективной миграционной политики.

Группа экспертов планирует изучить миграционную политику других стран в области налогообложения, социального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ских услуг и найти способы искоренить дискриминацию и маргинализацию в отношении иностранных резидентов в Южной Корее.

Формирование комиссии происходит в связи с ростом числа иностранных граждан, прибывающих в страну. По данным президентского комитета, официальное население Южной Кореи, состоящее из иностранных резидентов, составляет 2,18 миллиона человек. За 10 лет эта цифра увеличилась более чем вдвое и превышает нынешнее население провинции Южная Чхунчхон, составляющее 2,12 миллиона человек.

Президентский комитет ожидает, что вскоре этот показатель достигнет 5 процентов (2,57 миллиона) от 51,5-миллионного населения страны, что почти соответствует уровню других развитых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х стран.

Возглавляемая профессором юридического факультета Сеульского националь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Ли У Еном комиссия состоит из 14 ученых и политических экспертов корейской и иностранной национальности. Среди них профессор Тхакур Прасад Субеди из Линтонской школы глобального бизнеса Ханнам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родом из Непала; Фам Тхи Куинхоа, чиновник правительства из Вьетнама, отвечающий за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е семьи и права человека иностранцев; и британский эмигрант Пол Карвер, который возглавлял Сеульский глобальный центр с 2016 по 2019 год. Ли пообещал «собрать широкий спектр мнений об миграционной политике и управлять группой экспертов, чтобы улучшить общественное восприятие иностранных резидентов и создать сдвиг в парадигме миграционной политики».

Ким Хан Гиль, председатель президентского комитета, сказал: «Иммигранты — это новые корейцы», которые уже принимают участие в жизни нашего общества», — призвав специальную комиссию направлять политику в отношении иммигрантов, чтобы расширить и компенсировать их социальное участие.

О ПРОВЕДЕНИИ БРИФИНГА ПО ВОПРОСУ ПМЖ

Сообщаем о проведении собрания для планирующих подавать документы на ПМЖ в 2024 году.

Дата и время: 30.11.2023 12:30

Место проведения: актовый зал Корейского культурного центра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 проспект Мира, 83А)

Организаторы: Департамент по делам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Красный Крест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Южно-Сахалинская канцелярия Генерального консульства РК

В Корейском культурном центре прошла лекция Светланы Пайчадзе

Лекция доктора философии, доцента Хоккайд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Светланы Пайчадзе прошла 17 ноября 2023 г. Выступление было посвящено актуальной теме – политике Японии по отношению к сахалинским корейцам после 1945 г. Мероприятие состоялось в рамках «Дискуссионной площадки по вопросам исторической справедливости дл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 проекте, осуществляемой РООСК совместно с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думой, Министерством культуры и архивного дел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Сахалинским областным краеведческим музеем. Лектор выступил перед слушателями, которые собрались в зале Корейского культурного



На лекции слушатели узнали, что в Японии после 1945 г. в отношени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особый акцент ставился на осуществление (или неосуществление) репатриации корейцев. Связано это было с двумя факторами – проходившей на протяжении десятилетий репатриации японцев с Сахалина и корейским общественным движением, требовавшим соблюдения прав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Японские политические круги отрицали свою юридическую обязанность организовать корейскую репатриацию, однако признавали необходимость «содействия» в связи с наличием моральной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перед корейцами, которых насильно мобилизовали до 1945 г. и «бросили» на Сахалине в послевоенный период. Дебаты, которые до сих пор проводятся в японском обще-

стве, проливают свет на причины политики, которую ведет Япония по отношению к корейцам до сих пор.

Выступление вызвало большой интерес со стороны слушателей. Они задавали вопросы, в том числе о современном состоянии политического процесса в Японии,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этой страны перед корейцами, меж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 опыту разрешения наболевших проблем. На данный момент, согласно мнению лектора, перспективы дальнейшего продвижения в этом вопросе туманны из-за сложной политической обстановки.

Напоминаем, что «Дискуссионная площадка по вопросам исторической справедливости дл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 общественный проект, направленный на просвещение корей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по проблемам насильственной мобилизации, притеснений, дискриминации, оплаты за труд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в период японского господства на южной части Сахалина и в Корею с 1905 по 1945 г. Общественным организациям предстоит выработать резолюцию для выдвигания претензий к Японии от сахалинской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Следующая лекция «Дискуссионной площадки» состоится 15 декабря 2023 г. Перед слушателями выступит профессор СахГУ, доктор исторических наук Наталья Потапова с темой «Международный опыт разрешения проблем насильственно перемещенных и пострадавших от действий государств лиц после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Наш корр.

Александр Ли - яркая личность и просто душевный человек

Вечером 20 ноября в конференц-зале гостиничного комплекса «Гагарин»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Встречи на Сахалине: о жизни, творчестве, душе» состоялась встреча с сахалинским режиссером, артистом драмы, ведущим мастером сцены и педагогом Александром Ли.

Это имя, несомненно, хорошо знакомо всем сахалинским театрам и не только.

Несмотря на ненастную погоду, гости мероприятия собрались в этот вечер понеделника в тесном кругу, чтобы поближе познакомиться с творчеством Александра, услышать историю становления этой яркой, творческой личности, узнать о чувствах и переживаниях артиста на театральном поприще.

Александр Ли родился в г.Корсаков. Еще в школе, решил, что хочет работать на радио. И ради достижения этой мечты поступил в театральный колледж СахГУ, так как окончив его, как ему обещали, можно будет работать на радио. Но... актерство его увлекло. Его способности заметили, и перед окончанием колледжа, пригласили на работу в Сахалинский международный театральный центр им А.П.Чехова, где он стал артистом драмы, а затем ведущим мастером сцены. И все в его актерской карьере складывалось хорошо. Но в 2012 г. его с друзьями работа завоевала гран-при кинофестиваля «Сахалинский экран». Знаменитый российский кинорежиссер Алла Сурикова пригласила его на учебу на Высших курсах сценаристов и режиссеров. Были раздумья по этому поводу. А надо ли... Учиться в Москве было нелегко. Но потом втянулся. Несмотря на трудности, вызванные сменой творческого вектора, Александр Ли доказал справедливость выражения «талантливый человек талантлив во всем». Его дипломная работа – 20 минутная короткометражная картина «Сердцебиение» (2016 г.) завоевала сердца зрителей. С работой в кино он соприкасался и в рамках суперпопулярного на Сахалине кинофестиваля «Край света».

Проработав в театре почти 15 лет, с 2005 г. по 2019 г., Александр решил уйти в «свободное плавание». Именно тогда он поставил свой первый спектакль «Собака», постановка которого получила очень хорошие отзывы. Жаль из-за отъезда актрисы, исполняющей главную роль, это не имело продолжения.

Но все движется. С прошлого года Александр стал ведущим методистом по театральному жанру отдела народного творче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го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народного творчества, где он

как режиссер поставил уже три иммерсивных спектакля. Вместе с режиссером-наставником растет мастерство и его творческого коллектива. В его труппе люди самых разных профессий и разных национальностей. Коллектив взял себе название «Театр ЛИ». И, как заявляет сам режиссер, это не его фамилия, а открытый вопрос – театр ли?



На встрече поговорили о постановке «Нивхгу», показ которого прошел во многих районах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в Москве. Очень интересна работа «Я здесь», где было плотн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с ребятами с ОВЗ. А недавно поставленный спектакль «Поводырное небо» позволил Александру немного поработать с корейской темой, ведь одна из четырех представленных в спектакле сказок – корейская.

Режиссер говорит: «Я же кореец. И конечно же, мне хочется поставить что-то корейское. Мне это интересно».

В работах Александра есть глубокий смысл. Режиссер преследует сразу нескольких целей. Ему нравится многозадачность. Сам автор в ходе встречи отметил, что хотел бы чтобы его творчество оказывало воздействие на зрителей, передавало бытийный опыт и подсказывало дорогу в сложных жизненных ситуациях.

Александр очень прост в общении, доброжелателен. Самой больш ценностью в жизни известный мастер сцены считает семью, и на эту встречу он пришёл вместе со своей главной поддержкой, опорой и источником вдохновения - женой и сыном.

Встреча с Александром была очень душевной и оставила очень приятные впечатления. Как гость мероприятия, я бы хотел выразить слова благодарности Александру Ли за его творчество и искренность перед зрителем, а также организатору мероприятия - редакции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за приглашение и возможность познакомиться с такой яркой личностью.

Дмитрий Погудав
Фото: Ли Е Сик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В РК пройдёт выставка агротехнологий AFTER 2023

Министерство продовольствия, сельского и лесного хозяйства РК проведёт с 27 по 29 ноября в Сувоне выставку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ой продукции и технологий AFTER-2023. Подобные выставки проводятся раз в два года, начиная с 2004 года. На предстоящей выставке, которая станет десятой по счёту, будут представлены около 150 образцов техники, технологий и результатов научно-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в сельском хозяйстве. В рамках выставки пройдут семинары с участием южнокорейских и иностранных экспертов в области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Отличившиеся учёные-аграрии и фермеры получат награды.

В РК прибыла американская АПЛ Santa Fe

Американская атомная подводная лодка (АПЛ) Santa Fe класса «Лос-Анджелес» прибыла рано утром 22 ноября на южнокорейскую военно-морскую базу на острове Чечжудо. Её прибытие совпало с заявлением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об успешном запуске военного разведывательного спутника. АПЛ Santa Fe входит в авианосную ударную группу ВМС США вместе с атомным авианосцем Carl Vinson, который прибыл накануне на военно-морскую базу в Пусане на юго-востоке страны.

80% южнокорейцев осознают важность народной дипломатии

Почти 80% южнокорейцев считают народную дипломатию крайне важной и поддерживают её цели. Об этом свидетельствуют результаты опроса пяти тысяч взрослых южнокорейцев в возрасте от 19 до 69 лет, проведённого Корейским фондом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бменов в июне прошлого года. Народную дипломатию, то есть, неофициальные контакты обычных людей и обще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с целью улучшения взаимоотношений, лучшего понимания культуры, традиций и привычек граждан разных стран и их взаимовыгод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читают важной 79,4% респондентов. 76,6% опрошенных положительно оценили цели народной дипломатии. Что касается ожидаемого эффекта от народной дипломатии, то 71,5% участников опроса ответили, что она поможет улучшить национальный имидж. Звучали также заявления о положительном влиянии народной дипломатии на внешнюю политику государства, экономику и продвижение национальных интересов.

Профсоюз Сеульского метро отменил забастовку

21 ноября администрация и профсоюз Сеульской транспортной корпорации, управляющей линиями столичного метрополитена с первой по восьмую, достигли договорённости по спорным вопросам. В результате решение профсоюза о начале 22 ноября всеобщей забастовки было отменено. Администрация пообещала увеличить численность персонала, ответственного за безопасность движения. Одновременно профсоюз согласился с необходимостью общего сокращения штатов в интересах выживания корпорации. Обсуждение данного вопроса решено продолжить. Что касается увеличения оплаты труда, то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обратиться за финансовой поддержкой в мэрию Сеула. В заявлении, принятом по итогам переговоров, говорится, что корпорация в этом году примет на работу 660 новых сотрудников.

Музеи Ватикана предлагают буклеты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К 60-летию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РК и Ватиканом музейный комплекс Ватикана выпустил информационные буклеты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о 16 ноября посольство РК в Ватикане. Голосовое информационное сопровождение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в музеях на десяти языках – корейском, китайском, японском, английском, французском, итальянском, немецком, испанском, португальском и русском. Однако буклетов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до недавнего времени не было. В посольстве выразили надежду на то, что данная мера облегчит южнокорейцам осмотр музеев.

Внешний долг РК сократился

По предварительным данным Банка Кореи, внешний долг страны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конец сентября составил 649 млрд 300 млн долларов, что на 15 млрд 800 млн долларов меньше, чем в конце второго квартала текущего года. Рост долгосрочных внешних заимствований правительства компенсировал резкое снижение краткосрочного долга со сроком погашения в течение года. Краткосрочный долг сократился в третьем квартале на 20 млрд 300 млн долларов, составив 141 млрд 600 млн долларов, в то время как долгосрочный долг вырос на 4 млрд 600 млн долларов до 507 млрд 700 млн долларов. Отношение краткосрочного долга к валютным резервам снизилось на 4,2% до 34,2%. Более низкий коэффициент означает более высокую способность обслуживать долг. Отношение краткосрочного долга к общей сумме внешнего долга снизилось на 2,5% до 21,8%.

RKI

Сеул частично приостановил действие военного соглашения с Пхеньяном

Как и ожидалось, запуск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спутника спровоцировал ответную реакцию со стороны Сеула.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РК) резко осудила старт и заявила о приостановке действия части положений межкорейского Соглашения о мерах по снижению военной напряженности от 19 сентября 2018 г.

Напомним, что во вторник 21 ноября поздно вечером КНДР с космодрома Тончханни произвела запуск ракеты-носителя "Чхоллима-1", которая должна была вывести на орбиту военный наблюдательный спутник "Маллиген-1". Через несколько часов после старта Пхеньян официально сообщил о том, что запуск прошёл успешно, а спутник вышел на заданную орбиту. КНДР при этом подчеркнула, что реализует свое законное право на освоение космоса. Это была третья попытка Пхеньяна вывести спутник на орбиту. Две предыдущие - в мае и августе этого года - закончились неудачами.

Правительство Южной Кореи накануне старта предупреждало, что в случае запуска спутника "предпримет меры для защиты своего народа", требуя при этом от КНДР отказаться от планов по запуску. Впрочем, никто реально не думал, что Пхеньян откажется от своих намерений. Эксперты же предположили, что "ответной мерой" будет полный или частичный выход Сеула из межкорейского Соглашения о мерах по снижению военной напряженности, который был подписан пять лет назад в период, когда Юг и Север Кореи пытались налаживать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Сразу после запуска Южная Корея жестко осудила вывод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военного спутника на орбиту. Старт был назван "грубым нарушением резолюций Совета безопасности ООН" и "прямым вызовом безопасности РК".

Кроме того, в Сеуле под председательством премьер-министра РК Хан Док Су прошло экстренное заседание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совета. По итогам встречи был принят заранее подготовленный документ, в котором предлагалось "отказаться до восстановления доверия в межкорейских отношениях" от выполнения действия части договоренностей соглашения от 19 сентября 2018 г. Премьер-министр Хан подчеркнул, что своим запуском спутника КНДР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ла нежелание выполнять положения договоренностей 2018 г.", переложив таким образом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за частичный отказ Сеула от соглашения на Пхеньян.

Вслед за этим прошло экстренное заседание Совета национ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РК, где председательствовал уже президент РК Юн Сок Ёль. Так как лидер Южной Кореи с частью помощников находится сейчас с визитом в Великобритании, то в совещании он участвовал в формате видеоконференции. Президент РК одобрил предложение приостановить действие части положения Соглашения от 19 сентября 2018 г.

Если говорить более подробно, то Сеул отказался далее выполнять положения пункта 3 статьи 1 Соглашения о мерах по снижению военной напряженности, которое министры обороны РК и КНДР подписали в Пхеньяне 19 сентября 2018 г. В этом пункте установлена прилегающая к межкорейской границе зона, где запрещались полеты. Для Юга это означало, что он не может активно использовать свои беспилотники и прочие средства разведки и наблюдения за действиям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Возможности наших вооруженных сил по обнаружению угроз и принятию ответных мер будет существенно усилены", - заявил премьер-министр РК Хан Док Су, подчеркнув, что приостановка действия части положений соглашения положительно скажется

на укреплении безопасности страны.

По итогам заседания СНБ РК было также заявлено, что будущая судьба всего межкорейского Соглашения о мерах по снижению военной напряженности от 19 сентября 2018 г. будет зависеть от действий Пхеньяна.

Как отмечают наблюдатели, запуск спутника КНДР стал лишь предлогом, за который Сеул с готовностью ухватился, чтобы оправдать приостановку действия соглашения. Если бы не было запуска, то Южная Корея рано или поздно нашла бы другой повод для аналогичных шагов. Ранее министерство обороны 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езидента РК неоднократно критически высказывались по поводу договоренностей, считая их крайне невыгодными и опасными с точки зрения воен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Юга. Соглашение было подписано пять лет назад, когда у власти в РК находились представители "прогрессив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ого" лагеря во главе с президентом Мун Чжэ Инном. Они были настроены на развитие связей 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 КНДР и сумели трижды провести саммит Муна и Ким Чен Ына. Пришедшие в 2022 г. к власти на Юге консерваторы настроены наоборот весьма жестко к Пхеньяну, что быстро вылилось в резкое охлаждение межкорейских отношений.

Военные "ястребы" Юга из стана консерваторов особенно были недовольны как раз Соглашением о мерах по снижению военной напряженности. Указывалось, что за прошедшие годы его выполняла только южнокорейская сторона, тогда как КНДР нарушила, согласно подсчетам Сеула, более 3900 раз. Кроме того, на южан сильно повлияла и атака ХАМАС на Израиль 7 октября. В РК стали опасаться, что КНДР может применить подобную же тактику, а южнокорейская сторона, связанная соглашением от 2018 г., не сможет заранее выявить приготовления северян к атаке и подготовиться к этому.

Что же касается характеристики Сеулом запуска спутника КНДР как вызова, то стоит напомнить, что несколько месяцев назад Южная Корея при помощи ракеты-носителя "Нури" сама произвела вывод спутника на околоземную орбиту. При этом Сеул практически те же самые действия, но со своей стороны, не посчитал шагами, дестабилизирующими обстановку в регионе. Впрочем, тут стоит отметить, что резолюции СБ ООН запрещают КНДР запуски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баллистических технологий. Пхеньян же в ответ указывает на закрепленное в международных договоренностях право всех наций на мирное исследование и освоение космоса, спрашивая: "Почему другим можно, а нам нет?!"

Так или иначе очевидно, что запуск спутника КНДР стал д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Южной Кореи лишь предлогом для аннулирования соглашения от 19 сентября 2018 г., тем более, что Пхеньян действительно сам не соблюдал эти договоренности в последние годы. Можно ожидать, что рано или поздно Сеул окончательно откажется от договора, тем более, что документ фактически не действует.

Данная ситуация стала еще одним доказательством весьма напряженного состояния межкорейских отношений, когда Сеул и Пхеньян разговаривают друг с другом только с позиции угроз, конфронтации и непримиримости. Обе стороны обвиняют друг друга в нагнетании напряженности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что вне зависимости от ответа на вопрос "Кто первый начал?" выливается в рост опасности конфликта.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РК)

Символ тхэквондо приравняли к производству искусства

Лозанна, 18 ноября – ИА РУСКОР. В ознаменование 50-летия Всемир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тхэквондо в Олимпийском музее в Лозанне открыта статуя, символизирующая этот вид спорта. Статуя, расположенная недалеко от Олимпийского огня и статуи основателя Олимпийского движения Пьера де Кубертена, изображает двух спортсменов-тхэквондистов в середине соревнования, которые пытаются нанести фирменный удар ногой в голову.

Статуя установлена на восьмиугольной платформе, на которой изображены логотипы Всемир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тхэквондо и Гуманитарного фонда тхэквондо (ТНФ), пять континентов и фраза «Спорт надежд и мечтаний». Среди тех, кто присутствовал на церемонии откры-



тия, были президент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олимпийского комитета (МОК) Томас Бах и президент Всемир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тхэквондо Чоу Чон Вон. «Для меня большая честь и удовольствие видеть, что тхэквондо занимает свое законное место в парке Олимпийского музея среди других вдохновляющих произведений искусства. Это законное место более чем заслужено, поскольку тхэквондо является одним из самых быстрорастущих видов спорта в мире», — сказал Бах.

Чоу сказал: «Я мечтал об этом моменте долгое, предельно долгое время. Много лет я мечтал о статуе, которая символизировала бы важность тхэквондо в олимпийской семье. Сегодня тот самый день».

Жител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ддержали проект регионального бюджета

Прибавку к заработной плате с 1 января 2024 года получат врачи, учителя, воспитатели детских садов, работники культуры и социальной защиты. Заработная плата работников бюджетной сферы будет проиндексирована на 10%. Об этом стало известно в ходе общественных обсуждений по проекту закона о бюджете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 2024-2026 годы.

В мероприятии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общественники, депутаты, представители органов исполнительной власти федерального, регионального и муниципального уровней. Как отметил председатель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Алексей Белик, в главном финансовом документе предусмотрены средства, необходимые для исполнения всех социальных обязательств перед жителями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ов.

– Работа над главным финансовым документом области велась на фоне внешнего санкционного давления. При этом нам удалось на региональном уровне нивелировать последствия многих вызовов. Мы уделили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выполнению всех социальных обязательств перед людьми вне зависимости от экономической ситуации и санкций, а также формиранию условий для повышения качества и доступности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и образования, созданию новых рабочих мест и комфортной городской среды. Мы нацелены на развитие транспортного и логистического сообщения, жилищно-коммунального хозяйства, энергетики и агропромышленного комплекса. Переселение людей из ветхого и аварийного жилья,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о дворов и приведение подъездов в надлежащее состояние – тоже в числе приоритет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 подчеркнул Алексей Белик.

Основные параметры главного финансового документа представила министр финансо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льга Лопатина. Она отметила, что доходы региональной казны в 2024 году прогнозируются на уровне 178,4 млрд рублей, в 2025 году – 172,2 млрд рублей, в 2026 году – 159,9 млрд рублей. Расходная часть в 2024 году определена в размере 217,4 млрд рублей, в 2025 году – 197,0 млрд рублей, в 2026 году – 183,3 млрд рублей.

Бюджет области традиционно сверстан с акцентом на социальную направленность. Так, на развитие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в 2024 году предусмотрено 31,0 млрд рублей. Расходы на сферу образования составят 32,6 млрд рублей, на культуру и спорт – 2,98 и 3,3 млрд рублей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Расходы на реализацию мер социальной поддержки составят порядка 23 млрд рублей. Помощь от государства получают около 245 тысяч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 Главный приоритет бюджета – это поддержка и рост благосостояния жителей нашего региона, – сказала Ольга Лопатина. – В представленном проекте бюджета области предусмотрены индексация мер социальной поддержки и зарплат работников бюджетной сферы, поддержка участников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и их семей, исполнение национальных целей, определенных Президентом России Владимиром Путиным.

При своей социальной ориентированности областной бюджет сохраняет инвестиционную направленность. Главный приоритет инвестицио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 завершение начатых объектов социально-культурной сферы, объектов жилищно-коммунального хозяйства, строительство жилья и дорож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В целом на программу развития в течение трех ближайших лет будет направлено 62,8 млрд рублей. За счет данных средств будет осуществляться строительство и реконструкция 133 объектов в различных сферах экономики и социальной сфере.

– Мы отмечаем существенное увеличение расходов на реализацию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программ в области образования,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социальной защиты, культуры, спорта. Увеличиваем объем социальной поддержки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строим школы и детские сады, обустроиваем общественные пространства, улучшаем транспортную инфраструктуру, расселяем людей из аварийного жилья. Все это говорит о сбалансированности и четко выверенных параметрах регионального бюджета, – отметила председатель областной Думы Елена Касьянова.

По словам депутата облдумы Натальи Коршуновой, законопроект можно охарактеризовать как бюджет развития при сохранении в нем социальных обязательств.

– Люди в районах постоянно поднимают вопросы строительства школ, детских садов, домов культуры в селах. Мы видим, насколько сейчас активизировалась реализация этих проектов. На следующий год запланирована сдача дома культуры в Соколе, школы-детского сада во Взморье, ФАПов и спорткомплексов в малых населенных пунктах. С каждым годом появляется все больше общественных пространств, чтобы людям было комфортно гулять и отдыхать, – сказала Наталья Коршунова.

Депутат облдумы и главврач областной больницы Владимир Розумейко подчеркнул важность развития высокотехнологичной медицины, которое учитывает главный финансовый документ.

– Мы хотим, чтобы нашим пациентам не нужно было куда-то уезжать за медицинской помощью. Сегодня в регионе проводятся практически все виды высокотехнологичных операций. Важно также, что в проекте бюджета

предусмотрено строительство и реконструкция новых поликлиник не только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но и в районах, – рассказал Владимир Розумейко.

Участники общественных обсуждений задали вопросы на темы доступности медицинской помощи и строительства объектов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переселения граждан из аварийного жилья, выделения средств на развитие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улучшения качества атмосферного воздуха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обустройства транспортных развязок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и другие. Все прозвучавшие предложения будут занесены в протокол мероприятия и направлены на рассмотрение депутатам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Думы, органам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власти и местного самоуправления. В первом чтении проект закона об областном бюджете на 2024-2026 годы будет рассмотрен 7 декабря. Документ вступит в силу с 1 января 2024 года.

За ходом обсуждения бюджета в режиме видеоконференции наблюдали жители всех 18 районов региона. Также трансляция велась в телеэфире и Интернете.

Благодаря листу ожидания сахалинцы могут быстрее купить билеты на транспорт и получить средства реабилитации

Сервис, запущенный по инициативе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показал свою эффективность. Лист ожидания на транспорте позволяет купить билеты на самолет, поезд, паром или автобус в случае их отсутствия в свободной продаже. Недавно лист ожидания заработал и для людей, которые нуждаются в технических средствах реабилитации.

Чтобы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сервисом в сфере транспорта, необходимо позвонить по номеру: *0065. Затем с помощью голосового помощника выбрать «Лист ожидания билета» и обсудить с оператором желаемое направление и дату полета. В ноябре на горячую линию обратились 175 человек, на сегодня в работе остаются еще 6 обращений.

– Вы должны адресно работать с людьми. Если кому-то срочно нужно улететь за медицинской помощью или, например, по семейным обстоятельствам, нужно помочь человеку. Если билетов на рейс уже нет, а потребность высокая, мы можем договориться о дополнительном рейсе или увеличении емкости борта. Лист ожидания дает министерству транспорта объективную картину о том, какие направления перегружены, и позволяет оперативно реагировать на ситуацию,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С момента запуска сервиса – с августа этого года – было положительно отработано более 700 обращений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К примеру, в конце августа – начале сентября в связи с большим количеством запросов емкость рейсов между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м и Москвой была увеличена почти на 1700 кресел. Это позволило многочисленным отпускникам спокойно вернуться домой без пересадок в промежуточных аэропортах.

В ноябре аналогичный механизм был внедрен и в социальной сфере. Позвонив на колл-центр 1300, можно встать в лист ожидания на технические средства реабилитации (ТСР). Обращения нуждающихся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оперативно направляются в социальный фонд РФ, который и обязан предоставлять ТСР. Если федеральное ведомство не справляется, регион закрывает потребность людей из своих ресурсов. Кроме того, анализ обращений от инвалидов по вопросам предоставления средств технической реабилитации также позволит принимать необходимые управленческие решения.

За неделю поступило уже 42 звонка от жителе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Часть обратившихся уже обеспечили необходимыми средствами реабилитации. Остальные вопросы должны получить положительное решение в течение недели.

Власти взяли на контроль подготовку управляющих компаний к зимнему периоду

Совещание по вопросам готовности управляющих компаний к зимнему содержанию дворов провели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и мэр Сергей Надсадин. На встречу пришли не все руководители предприятий. Позже выяснилось, что среди нескольких отсутствующих обслуживающих организаций почти все недостаточно подготовлены к зиме.

Совещание провели на территории завода имени Федотова, который отвечает за расчистку дорог и проездов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Предприятие заключило все контракты с подрядчиками, техника подготовлена к зиме. Соли и других материалов, необходимых для обработки дорог и тротуаров, заготовлено более 6 тысяч тонн – по опыту прошлых лет этого количества должно хватить до наступления следующего теплого сезона.

– Так же, как и предприятия, отвечающее за расчистку дорог и проездов от снега, к зиме должны быть готовы все управляющие компании. В прошлом году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было уделено вопросам обеспечения малыми снегоуборщиками и подготовке работников. И областные власти, и мэрия оказывали всяческую поддержку в приобретении техники и обучении сотрудников. Времени было достаточно, чтобы подготовиться к зимнему сезону. Обращаю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всех руководителей управляющих компаний – качественная расчистка дворов – это ваша обязанность, а не жест доброй воли, жильцы платят вам деньги, и вы должны оказывать им услугу должного качества. Если кто-то не справится с работой, будет не только отстранен, но и попадет в поле зрения прокура-

туры. Покрывать ваши недоработки мы никому не позволим, – подчеркну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 рекомендации администраци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большая часть организаций приобрела средства малой механизации: шнекороторы, разбрасыватели пескосольной смеси. Кроме того, муниципалитет закупил около 150 единиц средств малой механизации. Они находятся на балансе МУП «ЖЭУ-10». По заявкам УК техника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в долгосрочную аренду на весь зимний период, либо на время прохождения циклонов.

– Зимой улицы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чистятся достаточно качественно, но по дворам замечания еще остаются. Поэтому в новом году требования к УК по расчистке территорий, находящихся в их ведении, будут жесткими. Договорились, что, если нужна помощь, не хватает техники – будем решать эти вопросы совместно. Расчистка дворов, пешеходных дорожек и к местам складирования мусора должна производиться качественно и в срок, – отметил Сергей Надсадин.

Так, большинство управляющих организаций подтвердили, что они полностью готовы к зиме: некоторые компании уже приобрели собственную технику, остальные заключили договоры аренды.

Всего в муниципалитете действуют 90 организаций: УК, жилищные кооперативы, товарищества собственников жилья. Среди них – 25 – крупные организации. Эти УК находятся в постоянном контакте с администрацией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так как на их долю управления приходится около 85 процентов всего жилищного фонда.

При нарушениях УК по содержанию общего имущества и придомовой территории жители могут обратиться в ГЖИ или в диспетчерскую департамента город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300-475 (доб. 1-5). Также жалобы и вопросы можно оставлять в аккаунтах администраци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https://hipolink.me/yuzhnosakhalsk_official

На Сахалине создают центр для одаренных детей

Центр для одаренных детей откроют на Сахалине 1 сентября 2024 года на базе учебно-тренировочного центра «Восток». По различным программам направлений «Наука», «Искусство» и «Спорт» в нем будут заниматься не менее 3500 школьников в год в возрасте от 12 до 18 лет. Детали проекта сегодня обсудили на первом заседании попечительского совета, которое прове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 По решению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и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в регионах создаются учреждения, аналогичные учебному центру «Сириус» в Сочи, где талантливые дети занимаются наукой, спортом, искусством. Такой центр мы открываем и у нас на Сахалине на базе лучшей, на мой взгляд, площадки – учебно-тренировочного центра «Восток». Здесь есть все необходимое: лучшее общежитие и большая столовая, хорошие залы для занятий различными видами спорта и творчеством. Сейчас необходимо завершить строительство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го корпуса, чтобы с 1 сентября 2024 года весь комплекс был готов к приему детей. Все это делается, чтобы наши дети могли получать знания и развиваться в комфортной и в то же время креативной среде и оставались здесь жить и работать,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 словам министра образования региона Анастасии Киктевой, на островах будет проще организовать работу нового центра, поскольку еще в 2018 году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заключила соглашение с Фондом «Талант и Успех» и организовала углубленное обучение школьников по ряду направлений на базе регионального центра оценки качества образования.

Обучаться в новом центре будут прошедшие конкурсный отбор школьники в возрасте от 12 до 18 лет. Продолжительность смен составит от 7 до 21 дня. Преподавать по каждому из направлений будут лучшие специалисты в регионе.

– Мы хотим синхронизировать развитие нового кампуса СахалинТех с тем, что будет происходить в центре для талантливых детей. Одно из направлений связано с информационными технологиями, в том числе искусственный интеллект в разных сферах – управлении регионом, управлении данными. Другое направление – инженерная подготовка – строительство, нефтегаз, новая энергетика, в том числе водородный комплекс.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у нас появится полигон по комплексным технологиям, будут специалисты высокого уровня, которые будут работать и с ребятами здесь. Третье направление – аквабиотехнологии, что крайне важно для развития рыбопереработки, рыбозаведения. Отмечу, что не только наши преподаватели будут сюда приезжать, но и ребята будут заниматься в наших лабораториях. Также работаем над тем, чтобы в рамках обучения уже была своего рода практика на предприятиях потенциальных работодателей, – рассказал исполняющий обязанности ректора Сахалин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Александр Самардак.

По направлению «Искусство» ребята будут совершенствоваться в музыкально-исполнительском, театральном жанрах, литературном творчестве, изобразительном искусстве и дизайне. С ними также будут работать лучшие преподаватели. А в спорте упор сделают на горнолыжные виды, сноуборд, керлинг, карате, плавание, не забыв о популярных футболе, баскетболе, волейболе и художественной гимнастике.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제8회 사할린의 밤 후기

지금부터 정확히 40여년 전 1983년 6월 대한민국 공영방송인 KBS에서는 이산가족 찾기 특집 생방송을 선명하지도 않았던 그 시절 티비 브라운관으로 138일간 송출했다.

영화 속 장면으로도 만들어진 그 이산의 슬픔은 여전히 우리들의 가슴 속에 큰 회한으로 남아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후 '동토의 땅'이라면 사할린이라는 등식으로만 이해했던 그 러시아 본토에서 떨어진 하나의 큰 섬에는 세계대전 패전국의 일본의 외면과 이어 조국의 외면으로 버려지다시피 했던 수많은 한민족이 이국에서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그 오랜 사할린의 역사에 작은 발자취를 남겨온 대구 청년들의 족적을 오늘 다시 한 번 되새겨본다. 2023년 11월 10일 어느 때보다 더욱 많이 차가워진 날씨는 사할린에서 오신 분들에게도 춥다는 느낌을 주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루였다. 지역 곳곳으로부터 사할린에서 영주귀국한 어르신들의 생활을 선두에서 관리하시는 임원진들이 대구에 도착하셨다.

무언가를 넉넉하게 충분히 준비해서 모시지는 못하더라도 하루라도 일찍 오셔서 더욱 편히 대구에서 열리는 '사할린의 밤' 행사를 즐기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대구 식당가 거리인 '들안길'에서 추워서 움츠린 어깨를 펴시도록 따뜻한 곰탕집을 찾아 적당한 반주를 곁들이며 허기를 달랬다. 이어 대구 미술관을 찾아 여러 미술작품을 관람하는 시간이 주어졌다. 그러던 중 사할린에서 오신 어르신들이 예사롭게



만 볼 수 없을 것 같은 작품 몇 개를 봤다.

유관순, 박열 등 태극기와 여러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의 모습이 그려진 작품들이 어찌던 이번 방문에 아주 적합했던 그림들이었음을 직감할 수 있었다.

이어 숙소 작은 행사장에서는 대구 지역 여명라이온스에서 준비한 환영회가 마련됐다.

식전 상영된 '이산의 섬 사할린' 영상에서 필자는 적지않은 감동을 받았다. 40여년 전의 이산과 또 다른 이산의 모습이 아직 사할린에서는 그대로 남아 있는 것.

바로 그 아픔이 이번 사할린 행사에서 늘 떠나지 않는 하나의 가슴 속 대못이 되었다.

이 이야기는 뒤에 다시 거론하며...

대구의 외출을 마친 임원단들은 이어진 저녁 만찬에서 생선회와 함께 어우러진 술자리에서 연이어 건배를 외치며 '사할린의 밤' 성공을 기원하고, 대구 청년들에게 전하는 감사의 말씀들은 우리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순간들이었다. 이튿날, 부산, 인천, 안산 어르신들을 모신 버스가 속속 대구로 집결했다. 한 분, 한 분 행사장에 오시며 오랜만에 만나는 얼굴들을 보며 웃음과 포옹으로 그리고 어깨춤으로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어쩔 그리 정겨울까 싶은 그림이 그려졌다.

먼 거리, 오랜 시간을 마다않고 대구를 찾은 어르신들을 위해 짧은 여운이 남을지도 모를 행사를 준비한 대구 청년들은 준비했던 공연을 하나 하나 이어나갔다.

마지막으로 준비한 함께 어울리는 춤마당과 노래자랑은 우리 민족의 '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준, 저절로 입가에 미소를 한껏 만들어준 몽글한 시간으로 채워졌다.

돌아가시는 발걸음에 준비했던 선물을 황금색 보자기에 정성스레 포장



해 두 손에 꼭꼭 쥐어드리며 이번 제8회 사할린의 밤 행사는 내년을 기약하며 마무리했다.

하지만 앞에서 각설한 '이산의 땅 사할린 영주귀국'이라는 소중한 정부의 정책이 시행되었음에도 이 정책 이면에는 또 다른 이산가족을 만들어 내는 가슴 아픈 함정이 도사리고 있었고

그 영주귀국을 포기한 어르신들의 말씀이 우리들의 가슴을 후벼파고 있다. "나는 자식 곁에 있고 싶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생각나고 저절로 지금 글을 쓰면서도 눈시울이 붉어지는 말씀,

죽을 때 자식의 곁에 있고 싶고, 아플 때 자식의 곁에 있고 싶고, 가고 싶은, 꿈에도 그리던 대한민국이지만

애비 혼자, 애미 혼자.....자식을 두고 한국행의 발걸음이 차마 떨어지지 않았으리라.

그 마음 자식이기도 하고, 부모이기도 한 이제야 좀 이해가 간다.

하루 빨리 부모와 자식이 함께 대한민국에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정책이 이뤄지길 바라며,

그 어르신들이 더욱 마음 편히 이산의 아픔을 떨치고, 부모와 자녀 그리고 우리 대구의 청년들과 두 손을 맞잡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번 '사할린의 밤' 후기를 마친다.

멀리 대구를 찾아주신 어르신들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민족통일대구시청년협의회 부회장 황태웅

[우리말로 깨닫다]

세상을 닮은 소리

언어의 기원을 이야기할 때 '땡땡설'이란 게 있습니다. 우스꽝스러운 이 이름은 자연의 소리를 모방하는 것에서 언어가 시작되었다는 학설입니다. '땡땡'이라고 하였으니 개 소리를 모방한 것을 학설의 이름으로 삼은 셈입니다. 소리를 따라하는 능력은 인간의 귀한 능력으로 보입니다. 자연의 소리 중 짙은 소리, 지저귀는 소리, 파도 소리 등 흉내 못 내는 소리가 없을 정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른 사람의 목소리도 잘 흉내 냅니다. 성대모사라고 하는데 그 재주만으로도 먹고 살 정도로 깜짝 놀라는 능력입니다.



▲ 조현용 (경희대 교수, 한국어교육 전공)

그런데 인간은 소리만 흉내 내는 것이 아닙니다. 모습도 흉내 냅니다. 물론 모습을 흉내 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몸짓이겠지요. 새가 나는 모양, 파도가 치는 모양, 동물이 움직이는 모양 등 흉내에도 재주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모습도 흉내의 주요 테마입니다. 우스꽝스럽게 묘사하여 즐거움을 주기도 합니다. 많은 나라에서 행해지는 춤도 근본적으로 흉내였을 겁니다. 새나 짐승의 모습으로 분장하는 것은 흉내 내기가 목적임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탈춤이나 가면극은 모방을 극대화한 것입니다.

모습을 담아내는 방법이 언어에도 있습니다. 언어로 모습을 모방한 말을 의태어라고 합니다. 의성어가 소리를 모방하는 것이라면, 의태어는 모습을 모방하는 겁니다. 의성어는 대부분의 언어에 있습니다만, 의태어가 발달한 언어는 많지 않습니다. 한국어는 바로 이 의태어가 발달한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태어가 발달하였다는 말은 세상을 닮고, 세상을 닮는데 관심이 많았음을 의미합니다. 의태어는 작은 변화에도 관심을 가져야 생길 수 있는 말입니다.

걷는 모습을 묘사하더라도 우리는 다양한 의태어를 씁니다. 그리고 그 의태어를 들으면 어떻게 걷는지 느낌이 다가옵니다. 즉, 언어의 상징적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터벅터벅, 어슬렁어슬렁, 살금살금, 아장아장, 어기적어기적, 뒤뚱뒤뚱, 성큼성큼'은 말만 들어도 느낌을 알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어를 배울 때 제일 어려워하면서도 가장 재미있어하는 말이 바로 의태어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추상적인 모습도 흉내 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을 흉내 내면 어떻게 될까요? 민요를 보면 사랑의 모습을 흉내 내고 있어서 흥미롭습니다. 사랑의 모습이 하나가 아니기에 사랑의 의태어도 하나가 아닙니다. 창부타령 중에 '사랑 창부타령'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 속에는 다양한 사랑 관련 의태어가 나옵니다. 물론 사랑에만 쓰이는 의태어는 아닙니다. '오목조목' 알뜰 사랑, '알각달각' 싸움 사랑, '지긋지긋' 애땀 사랑, '소근소근' 은근 사랑이 보입니다.

알뜰살뜰 사랑하는 모습은 오목조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오목조목은 표준국어대사전에서 ① 고르지 아니하게 군데군데 동그스름하게 패거나 들어간 모양 ② 자그마한 것이 모여서 야무진 느낌을 주는 모양으로 나옵니다. 두 번째 뜻이 알뜰이라는 표현에는 맞겠으나 첫 번째 뜻도 동시에 상상이 되어 더 재미있습니다. 알각달각은 알카달각카달각의 준말인데 '단단한 물건들이 자꾸 서로 매우 거칠게 닿거나 부딪치는 소리 또는 그 모양'이라고 사전에 나옵니다. 사랑이라는 게 늘 마음이 맞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예전에 우리는 사랑은 싸우기도 한다는 것, 부부 싸움은 칼로 물 베기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랑 노래임에도 싸움사랑을 넣은 것입니다. 하지만 헤어지는 싸움이 아니라 서로 맞추어 가는 사랑입니다. 요즘의 부부싸움은 칼로 물 베기인 경우도 많습니다. 도로 붙지가 않습니다.

지긋지긋에도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슬며시 가볍게 자꾸 힘을 주는 모양. 계속하여 조용히 참고 견디는 모양'이라는 뜻이 첫 번째 의미입니다. 이 노래에는 첫 번째 의미가 맞습니다. 애태우는 감정을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진저리가 나도록 몹시 싫고 괴로운 모양'이라는 뜻도 있는데 애태움의 감정에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소근소근'은 '소곤소곤'과 같은 말입니다. '남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작은 목소리로 자꾸 가만가만 이야기하는 소리 또는 그 모양'이라고 사전에는 나옵니다. 은근 사랑과 잘 어울립니다. 이렇듯 추상적인 어휘를 구체적인 의태어로 표현함으로써 우리의 감정이 더 잘 다가옵니다.

의성어는 세상의 소리를 닮아서, 의태어는 세상의 모습을 닮아서 재미있습니다. 또한 의태어는 추상적인 세계까지 담고 있어서 더 흥미롭습니다. 의성어와 의태어를 통해서 인간은 자연의 소리, 모습과 하나가 됩니다. 의성어와 의태어는 인간 언어의 출발점이자 귀착점인 셈입니다. 인간은 자연을 닮고 닮았습니다.

(출처: 재외동포신문)

'언어로 본 한국인의 문화유전자, 2023 세종도서 교양부문 선정

조현용 경희대교수가 쓴 여섯 번째 선정 세종도서 "한국어와 한국인을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편하게 쓴 책" '언어로 본 한국인의 문화유전자' (2023, ㈜도서출판 하우)

본지에 칼럼 '우리말로 깨닫다'를 연재 중인 조현용 경희대학교 한국어교육 전공 교수의 저서 '언어로 본 한국인의 문화유전자' (2023, ㈜도서출판 하우)가 '2023년 세종도서 교양부문 선정도서'가 됐다.

한국출판문화진흥원은 11월 22일 '언어로 본 한국인의 문화유전자' 등 10개 분야 550종의 도서를 2023년 교양부문 세종도서로 선정, 공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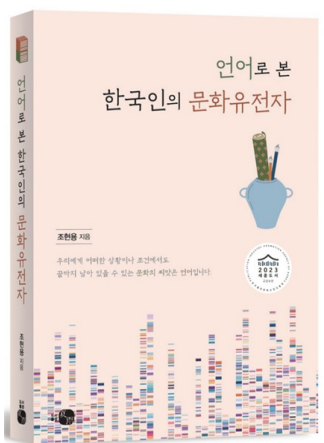
이번 선정은 2022년 5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출간된 도서를 대상으로 접수된 10개 분과 9,896종의 도서를 '사전검토(온·오프라인)-1차 추천회의-2차 추천회의'의 2단계 합의제를 거쳐 이 중 550종을 최종적으로 추천했다. 주최 측은 선정된 도서 당 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출판사로부터 구입해 전국 각 도서관 등에 보급할 예정이다.

저자 조현용 교수는 이 책에 대해 "한국어 속에 담겨 있는 문화 요소를 설명한 책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사랑하

고, 한류의 근원을 알고 싶은 사람에게 권하는 책"이라고 소개한다.

조 교수는 "한국어와 한국인을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강의 형식으로 편하게 쓴 책이다. 특히 한국어와 한국문화 연구자, 한국어 교사, 한글학 교 선생님, 한국어 고급 학습자에게 한국어를 새롭게 바라보는 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선정으로 조 교수는 '2012년 '우리말, 가슴을 울리다', 2014년 '우리말, 지친 어깨를 토닥이다', 2015년 '우리말의 숲에서 하늘을 보다'와 2017년 '한국어, 문화를 말하다', 2019년 '우리말 교실'까지 모두 여섯 권의 저서를 역대 세종도서 목록에 올리게 됐다.



(재외동포신문)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Никита Кислый стал 44-м, добившись четырех побед из шести туров с разными возрастными категориями. В областном минспорта отметили, что места присуждаются на основе общероссийского рейтинга, который формируется из постоянных участий спортсменов в значимых спортивных событиях по го.

외국인과 위장결혼한 10 명의 사할린 주민 기소

사할린 재판부는 외국인과 혼인관계를 맺은 10명의 사할린 여성들에 대한 범죄사건을 검토하고 있다. 이 여성들은 돈을 받고 외국인들과 위장결혼하는 방식으로 외국인들이 러시아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도록 했다고 사할린주 내무국 홍보처가 전했다.

이러한 사업은 이민법률 사무소에서 일하던 32세의 여성이 조직했다. 이는 러시아 여성과 혼인으로 간단한 절차에 따라 임시 거주권을 취득하도록 했다. 2018년에 이 여성은 타지키스탄에서 온 사람과 2만5천 루블리의 비용을 받고 혼인등록을 했다. 2020년 6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이 여성은 이런 방식으로 9명의 여성을 혼인시켰고, 이로 얻은 수익은 52만 루블리에 달했다. 이 사건의 범죄행위에 따른 판단을 위해 사건은 유즈노사할린스크 법원에 회부됐다.

Полиция обвинила десять жительниц Сахалина в фиктивных браках с иностранцами

На Сахалине суд рассмотрит уголовные дела в отношении десяти местных женщин, которые заключили браки с иностранцами. Они делали это за деньги, чтобы помочь легализоваться в России,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УМВД России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Бизнес организовала 32-летняя женщина, кото-

рая разбиралась в миграционном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е. Свадьба с россиялкой помогла иностранцам получить разрешение на временное проживание в упрощенном порядке. Так, в 2018 году она сама вступила в брак с приезжим из Таджикистана за 25 тыс. рублей. С июня 2020 по апрель 2022 года женщина выдала замуж по той же схеме еще девять девушек. Доход составил около 520 тыс. рублей. Обвинительное заключение направлено в суд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для рассмотрения по существу.

포로나이스크지역 해안가에 태풍으로 수 톤의 조개들 떠밀려와

11월 18일 태풍이 지나고 포로나이스크 인근 해안가에 수천 개의 코끼리조개가 떠밀려왔다. 이후 이 지역 주민들은 양동으로 조개들을 담았는데 목격자들이 이런 자연현상을 영상에 담아 소셜네트워크에서 공유했다. '포로나이스크의 별' 텔레그램 방송에서도 태풍의 영향으로 수천 개의 코끼리조개가 사할린 해안에 널부러져 있는 영상이 공개되었다. 11월 19 일에는 미각을 살리는 해물을 찾아 포로나이스크로 '낚시인들'의 '대대'가 찾아오고, 사람들이 큰 통과 자루를 들고 조개를 채취하러 왔다.

"이 조개는 일반 조개와는 다른 모습이다. 조개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도 무료인데 왜 가져가지 않을까? 이 조개 맛은 새우와 오징어 맛이 나며, 쫄깃하고 살이 통통하다."고 텔레그램에 글이 올랐다.

Тонны моллюсков выбросило штормом на побережье в Поронайском районе

Тысячи гуйдаков выбросило на побережье в окрестностях Поронайска. Местные жители ведрами собирали моллюсков после прошедшего 18 ноября циклона. Видеозаписью необычного природного явления очевидцы поделились в социальных сетях.

Видеоролик опубликовали в Telegram-канале «Звезда Поронайска». Тысячи гуйдаков выбросило в шторм

на побережье Сахалина. Утром 19 ноября за морскими деликатесами в Поронайский район выдвинулся рыбацкий «батальон» — люди ездили за добычей с большими контейнерами и мешками. «Эти моллюски не очень приличного вида. На любителя, но когда бесплатно — почему же не взять? На вкус ракушка напоминает креветку или кальмара, жестковата, зато мяса много», — написали в Telegram-канале.

사할린 여성 2명이 보이스포싱범에게 6백만 루블리 전달

유즈노사할린스크의 여성 2명이 보이스포싱범과 연락 후 6백만 루블리를 빼앗겼다.

보이스포싱범은 이 여성들의 이름으로 대출에 대한 이야기를 꾸며내어 여성들을 속였다고 사할린주 내무국이 밝혔다.

유즈노사할린스크 68세의 여성 피해자의 경우는 11월 16일 보이스포싱범이 피해 여성에게 전화해 그녀의 이름으로 대출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후 여성은 스스로 3백50만 루블리를 대출하여 보이스포싱범이 지시한 계좌로 보냈다.

다음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기꾼은 50세 여성을 속여 이 여성도 2백60만 루블리를 사기꾼에게 송금했다. 현재 이 두 사기사건은 범죄행위로 기소돼 조사 중이다.

Две жительницы Сахалина перевели мошенникам более 6 млн рублей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две местные жительницы лишились свыше 6 млн рублей после общения с мошенниками. Женщин обманули с помощью легенды о взятых на их имя кредитах,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УМВД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дной из потерпевших стала 68-летняя южносахалинка. Злоумышленник позвонил ей 16 ноября и сообщил о попытке оформить кредит на ее имя. После этого женщина сама взяла займ почти на 3,5 млн рублей и перевела их на указанный счет. На следующий день таким же способом мошенник обманул 50-летнюю женщину. Она отправила аферистам более 2,6 млн рублей. По обоим фактам возбуждены уголовные дела.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Реклама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2024 год!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6 месяцев — 646 руб. 98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3810750340000024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본사 편집부

МЕБЕЛЬНАЯ ФАБРИКА КУПИ ДИВАН - ПОЛУЧИ ПОДАРОК!

ул. Украинская, 58, тел.: 77-77-00

광고-광고

새고려 신문사는 독자 여러분이 신문에 실고자 하시는 광고나 생일 또는 여러 축하문을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전화: 43-59-80, 43-72-94. 이메일 :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로 연락 바랍니다.

Уважаемые читатели!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едлагает печатные площадки для размещения рекламы, объявлений и поздравлений.

Контакт. телефон: 43-59-80, 43-72-94. Адрес эл. почты: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p>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p>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사장(주필) 배 워토리야</p>	<p>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p>	<p>Отпечатано в 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8-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3-00</p>	<p>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100 экз.</p>	<p>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p>
--	---	--	--	--	--